

토지이용계획과 정책의 잘못에 따른 마구잡이 식 난개발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하겠지만 그렇다고 건축사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을 앞세워 지나치게 높은 개발밀도(용적률)를 추구하는 발주자에게 도시환경의 질적저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사업성의 허용범위에서 문화예술성, 작품성을 충족시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축사의 책임도 크며, 부실공사가 저가입찰제도와 덤핑수주, 기능인력의 장인정신의 결여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문화수준의 척도가 건축으로 표현된다고 볼 때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잘못된 일의 공범자요, 방관자이기

때문이다. 건축설계와 인허가, 공사감리와 처벌, 조사 검사업무의 대행과 책임추궁, 건축사의 무한책임 등은 잘못된 연결고리임에 틀림없고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역할과 업무한계, 그리고 책임 등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찌 21세기 첨단 선진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설환경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며 자기일에 책임을 지고 노력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사회, 책임을 질 수 있는 선진사회가 건축계에도 찾아오길 기대한다.

우습지 않은 우화 The Unamusing Farce

조성룡 / 건축사사무소 조성룡도시건축
by Joh Sung-Yong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지난해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막연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이미 5년전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건미준)'을 시작할 무렵부터였다. 사실 그 전까지 설계나 열심히 하는 건축사들에게 무슨 법이나 제도에 대한 식견이 있으며 그 옹고그름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있었겠는가. 늘 바빠서 생각이나 할 겨를이 언제 제대로 있었는가.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그렇게 지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불편한 제도와 말도 안되는 법조항 준수에 무감각해지고 익숙해져 있었다. 사무소가 영세하다며 세 건축사 이상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종합사무소제도를 십여년간 잘 지켜오고 있었으며 자기가 설계한 주택이나 소규모빌딩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부조리'를 미리 막는다는 구실로 감리권한을 빼앗기고도 그저 혀를 찰 뿐 조용하였다. 한 마디로 '양반'이지만 다른 말로는 '방관자'였다. 그저 일어나 많고 해외로 나가 골프나 즐길 수 있으면 좋았다. 오죽하면 협회 회원용 골프장을 만든다는 헛소문이 나 돌기까지 했겠는가.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법과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덜컥 겁이 났다.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법과 제도속에서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기만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올라 탄 듯한 기분이었다(그때 발간한 1993건축백서의 서문에 '건축의 위기'라고 썼다).

1992년말 '소규모건물의 감리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새건축'이 조직되었고, 1993년에는 '건미준'으로 이름을 바꾸어 '새건축 운동'을 준비하였다. 건미준은 협회나 정부에 시비를 걸자고 벌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면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려는 쪽이었다. 뿐만 아니라 '새건축 운동'을 통해 그 동안의 우리(건축사)의 소극적 자세를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종합사무소제도, 설계·감리분리제도, 건축사시험제도, 설계경기제도, 도서신고제도, 심의와 인허가제도 등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노

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건축설 계교육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제도상의 대안을 정부에 개진 하였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검토되기 전 까지 우리는 원시적인 종합사무실제도를 십 몇 년간 준수(?)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고, 이 제도에 묶 인 건축사 연서제도의 책임은 처벌이 민사, 형사에 걸쳐 동일 하게 적용된다는 법 조문도 제대로 몰랐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 졌고 그에 관련된 동료들은 아직 감옥에 있다. 젊은 사람들은 보수가 월등한 건설회사와 감리회사로 수없이 떠났다. 직원들 은 어려운 자격시험에 노이로제가 되어, 해마다 봄부터 겨울까 지는 사무실마다 중견사원의 휴직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면 허를 따자마자 사무실을 독립하거나 일부는 재벌회사나 대기 업 설계회사에서 넘쳐나는 거품프로젝트의 하청설계를 맡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기를 잃어갔다. 집단이기주의로 눈앞 의 이익만 쳐다보다가 감리제도도 이상하게 변질되어버리고, 현장에서 시공도도 제대로 그리지 않는 건설회사가 설계업 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논란 끝에 일시 유보되기는 하였어 도)처럼 우습지 않은 우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건축학교로 찾아온 영국의 한 건축가는 품질관리와 안전 관리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건축사의 감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연실색하며 우리의 무지함과 '간(肝) 콧'을 경탄했다.

우화1

1995년인가. 어느 날 건교부장관 명의로 된 공문이 모든 설계사무실에 전송되었다.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 주하는 프로젝트의 설계를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리둥 절하여 협회 기술부에 전화를 걸었으나 그 사실은 커녕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상근 부회장에게 알려 건교부에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하도록 요청하였다. 얼마 후 이에 관련한 공문이 다시 날아왔다. "시공상세도 작성 은 모든 공사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계같은 가설공사는 포 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상근 부회장과 함께 건교부로 달려가 공문을 기안한 토목주사를 만 나(설계자가, 그것도 설계를 완료하는 시점에 시공도를 그려 내라는 황당한 내용에) 두시간 넘게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다 행히(?) 조정되었다(그렇지만 한 나라의 건설에 관련한 모든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관청에서 시공도가 무엇이며 왜 작성해 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부실공사를 막는다 는 구실로 자행되니,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이 그 동안 전혀 없 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관청

의 무지와 횡포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일을 맡고 있는 건축사와 협회의 철저한 무관심이다).

우화2

종합사무소제도를 철폐하는 사안을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건미준'에서 일체의 사무소구분을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나서자 대규모 설계회사에서 그 대신 '단독'과 '법인' 사무실로 나누어야 한다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학회가 중재에 나섰다. 원로 건축사와 교수 몇 분이 마련한 협의 자리 에 김영섭 회원과 함께 불려갔다. 한때 협회회장까지 지냈던 대규모사무소의 사장은 큰 규모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법인사무실로 구별되어야 된 다는 논리를 폈다. 이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어이가 없어 "건축 사면허에 규모제한의 표시가 있느냐"고 대들었더니 도대체 (우리와 같은) 작은 사무실에서 만평 넘는 일을 어떻게 맡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머리를 가로 저었다.

우화3

지난해 말 주택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과 리조 트단지 프로젝트의 설계계약으로 옥신각신 하던 때였다. 굳이 건축주 쪽에서는 건축사가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용검사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나는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공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준공도(As-Built Drawing)를 어찌서 건축사가 해야 할 과업인지 따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것은 법 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내어놓는데 지난해 초에 시행된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 리지침'에는 준공도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한다." 고 애매하게 되어 있다. 협회 기술부에 문의했더니 자세한 내 용을 모르겠다고 대답할 뿐이었다(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축 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면 현장에서 변경된 대강의 내용 만 고쳐놓으면 준공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화4

'새건축운동'의 실천강령 중에는 업무와 관련 된 일체의 금품제공을 거부한다는 '비참하고 전시대적'인 내 용도 들어있었다. 그 표시로 모든 설계도서에 'a마크'를 삽입 하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4년간 이 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 썼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거의 세배나 걸렸다. 일을 맡긴 건축주들은 허 가가 늦어지자 때로 불편해 하기도 하고 사무소의 무능력으로 몰아부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일도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그 리 편할 수가 없었다. 허가서류를 보완하느라 몇 번씩이고 관 청을 드나들어야 했던 직원들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몇

땀해 보였다. 딱 한번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계속 자잘한 내용을 수정시키며 시간을 끌던 관청 직원은 '눈치 없는 소장' 때문에 고생하던 직원 편으로 자기들이 쓰는 양식 몇 가지를 인쇄해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였다.

장기 독재정권, 공무원의 부정부패, 모자라는 국민의 도덕성-이 세가지 중 한두가지 충족되어도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 중 거의 모두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하기는 커녕, 올림픽을 유치하였고 월드컵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세계 10대 무역교역국에 들었고 드디어 선진국의 문턱까지 바라보다가 지금과 같은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자라온 '부정부패', '부실공사', 이제 대량 '부도사태'로 이어지는 이 역현상은 해방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온 질곡이다. 문화가 실종된 나라(문화와 스포츠를 혼동하여 문화체육부로 운영하는 나라),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그 동안 열심히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한 지식인으로 땀뻑할 수 있는가, 무슨 이슈만 있으면 이 나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자고 태극기 앞에 손을 들고 선서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에 맞는 모습으로 세월을 살아왔는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이번의 위기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가져오

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지난 고도 경제성장 시절의 방만하고 무절제했음을 돌아보게 하고 현재 우리의 초상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로써 가치가 있다. 지난 세월의 무분별과 욕망을 이제 버리자. 건축사는 부동산가치나 생각하고 재벌기업이나 돈 가진 자들의 분수없는 거품 부풀리기에 놀아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다.

이번의 위기는 이 시대, 이 땅의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는 참된 전문가로 거듭 태어나는 좋은 기회이다.

(원고를 마지막으로 교정하는 날 아침,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설계 감리 업무 분리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는 공문이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도착하였다. 총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을 회원으로서 따라야 하겠지만, 법 규정도 없는 이 제도가 시비에 휘말릴 때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사회 기준이 불투명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라 전체가 당하고 있는 판에 땀뻑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도 설계에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자기 책임아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우리의 전문적 영역을 스스로 국민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 될 것이다. 우리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어렵다해서 앞 뒤 재지 않고 분별없이 행동할 수도 없지 않은가.)

빈곳을 채우자

Filling Up the Voids

부대진 / 진아건축 · 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by Bou Dai-Jin

급변하는 개발시대의 침병으로 자처해온 우리 건축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환경과 문화의 파괴를 간과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해온 경제정책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대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비참하게도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그에 수반되는 저소득,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뿐이 아닌가?
돌아보면 속전속결이 미덕이었던 지난 세월 건축적 소양이

나 전문지식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하는 건축가군과 모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설피 기형건축가 군만을 양산하였다.

세계에 유례없는 방대한 건설물량이 기술력없는 인해전술로 소화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Generalist의 등장과 병행하여 전문직의 퇴장이라는 이상현상을 가져왔다.